홈페이지 홍보자료(조수동)

유튜브 : 7142Cho TV

슬로건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7142Cho/친한사이죠)가 되겠습니다.
출마의변	

우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발 벗고 나선 조수동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제13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입후보하면서, 먼저 협회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사회복지 인생은 한마디로 '현장에 미친 사회복지사' 라 하겠습니다. 비록 알아주진 않지만 최고의 직업은 역시 명함에 새겨진 앞뒤로 '사' 자(字)인 사회복지사라는 자긍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현장 경험은 누구보다 많이 하였습니다. 쫄병 복지사로 시작하여 중간관리자와 시설장 그리고 법인 사무총장과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 자원봉사센터 · 시니어클럽 · 주간보호센터 · 방과후 교실 · 어린이집 · 장애인작업장 · 재가복지센터 · 장애인활동지원센터 ·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수많은 복지시설 수탁 및 오픈 작업을 하였음은 물론, 평가 1위로 당시 국무총리의 기관방문, 기업체 지정기탁금 26억원 확보로 장남감월드 9개소를 역으로 지자체에 기부, 복지Cafe7142 운영, 동남아와 페루 등에도 방과후 교실 및 유치원, 컴퓨터 교실 등을 개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장 특별한 일은 사회복지사의 중개자(mediator) 역할로 30년을 장애인 중매쟁이로 살면서 주머니 돈으로 약 200여 쌍의 장애인 부부를 탄생시킨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일 중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의 짐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평생을 먹고 살면서도 후배님들을 위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전국 사협회를 둘러보는 역할을 하여 보았지만, 결코 마음의 짐을 벗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현직에서 정년 퇴직을 하면, 협회장이 되어도 관청이나 주변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으니 후배님들을 위한 바른 소리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봉사를 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제 정년을 맞아 스스로 그 길을 가려합니다.

끝으로 초대 손용섭 회장님으로부터 현 김준환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희생과 노고로 이뤄 오심에 감사드리오며, 오직 회원 여러분의 사회복지사가 되리라는 약속으로 인사 올립니다.

인적 및 학력 사항	▶ 나이 : 1959년생(65세)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사항 : 2녀 1남 - 처와 차녀(사회복지사) - 장녀(변호사) - 아들(LG 회사원)	▶ 병역 : 병장 전역(보병 9사단) ▶ 사회복지사(1급)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숭실대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석사) ▶ 성신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주요 경력	▶ 충사협(대의원) 및 한사협(감사) ▶ NGO 한국결혼가족복지회(회장) ▶ 라포르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소장) ▶ 저널24시(편집국장) 및 7142Cho TV 운영 ▶ 서정대 사회복지상담과 조교수	▶ 한나원(양로원 총무) ▶ 생명의전화(부장), 면목사회복지관(관장) ▶ 도봉 · 압구정 · 청평 · 명락노인복지관(관장) ▶ 도봉시니어클럽(관장) · 한국시니어클럽회장 ▶ 밀알복지재단(사무총장), 우리복지(이사장)
주요 공약	▶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 사랑스러운 충북사회복지사협회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사항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할 생각도 잠시 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면서 과연 절반이라도 이행하였을까? 라는 물음에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1992년도에 관장이 공석인 모 복지관 부장 재직 시에 어렵게 시간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 해에 관장 임명을 할 터이니 포기하라는 제안에도 먼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결국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여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존심 지키기’와 ‘사랑스런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만들기’ 라는 두 바퀴 이외의 정책 공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선거운동을 협회의 문제점과 회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당선과 함께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소위 메니페스토(manifesto) 방식으로 꼭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표 및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인생의 마지막 계획으로 정년이 되면 관청이나 주변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자유의 몸이 되어, 협회장으로서 그간의 충실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한번 하리라는 소신에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소위 ‘사’자가 앞뒤로 달린 바로 ‘사회복지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명함에 사회복지사를 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상 문제로 복지관에 취업을 하면 처음엔 사회복지사가 되고 3년이면 선임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물론 명함에도 그렇게 새깁니다.

그러나 부장 · 관장이 되면 사회복지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부끄러워 뺐다는 협회장 명함을 수차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꽃’은 그야말로 우리들 현장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고의 자부심으로 새겨진 당당한 명함 그리고 부장 사회복지사요 관장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당당한 명함 갖기 및 바른 소리 실천운동
- 현장 복지사 중심의 강사 구성 및 맞춤형 보수교육
- 선구적인 벤처 마인드와 연구논문 작성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전문성 확보로 연봉제 또는 공무원 이상의 급여 목표)

2. 사랑스러운 충북사회복지사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가라기에 청주대 사회복지과 재학 시절 실습지로 한번은 당시 청주 KCF에서 하였고, 두 번째 실습지는 굳이 서울 남부사회복지관에 지원하였습니다. 난생처음 서울 구경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락없는 촌놈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서울이지만 당시로는 실천중심의 공부로 알려진 숭실대 대학원을 꼭 가야 했고 졸업과 동시에 총장님 추천으로 대학도 관청도 아닌 제가 좋아하는 실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41세에 서울에서도 가장 젊은 사회복지관 관장이 되었고 30년 이상을 일 중독이 되어 복지관 평가 1위 및 국무총리의 기관방문, 수많은 프로포절 사업과 지정기탁금 26억원 확보, 전직원 해외연수, 시니어클럽 협회장으로서 제1회 전국대회 개최, 30여 차례의 기관 수탁 및 오픈 작업, 200여 쌍의 장애인 부부 탄생, 중국조선족 소년소녀가장돕기, 동남아지역 유치원 건립 및 컴퓨터실 개소 등의 실로 많은 현장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의 복지현장에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워 제천의 명락노인복지관장 모집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5년을 함께 일하면서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타지로 떠난 저에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찾아와 주심에 감동하여 다시금 충북 땅 음성에 터를 잡았고, 이제는 협회장에 출마한다는 보고에 선거후원금을 지원하시겠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는 서울이 아닌 '충북'으로 가야 함이 당연한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전국의 지방협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협회가 여러모로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진행되는 것이 없는 장기 침체 상태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겉과 속 모두 협회의 주인은 직원이 아닌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 간에 사랑이 넘침은 물론 중앙으로부터 빠른 정보수집과 함께 남들이 하지 않는 복지, 솔선하는 복지, 선구적인 복지를 위한 벤처 정신으로 타지에서 배우러 오는 최고의 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만약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스스로 아무런 사심 없이 일하고자 당선과 동시에 날자 기록을 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 주인(회원)에게 친절함으로 타지에서 배우러 오는 협회
- 어려울 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협회장)
- 사회복지사 고민상담 및 만남 전용 커피숍 개설(수익사업화)
- 홍보대사 위촉 및 발전기금 조성(정년퇴직 기념 기부 및 예우)
- 인수위원회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위원 공개모집)
- 지방협회 및 민관 연대 강화
- 기타(충북에 시험장, 투명성 확보 등)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